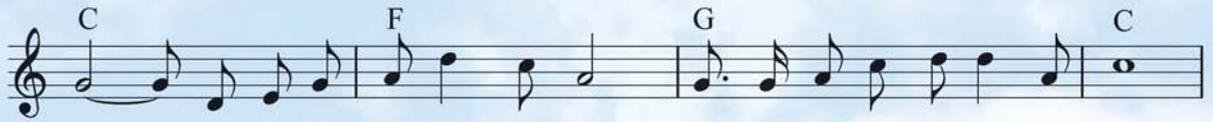
금수강산

6

주체108(2019)
루계 제358호 월간

 ISSN 1727—9062

흥하는 내 나라

2. 백리 양어 넓은 못엔 고기떼가 욱실대고
곧추 뻗은 고속도로 눈뿌리 아득해라
(후렴)

3. 부흥하는 내 나라 몰라보게 변모되니
어딜 가나 웃음이요 어딜 가나 노래로세
(후렴)

유치원생활 신나요

유치원생활의 하루를 보낸 대동문유치원 어린이들이 집으로 가는 마음은 언제나 즐겁기만 하다.

좋아라 웃으며 뛰는 어린이들의 얼굴마다에는 빨간별 탄 기쁨이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금진

차 례

양어발전에서의 전변

오늘 조국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양어를 하는 이채로운 풍경을 볼수 있다.

양어가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여 각 도, 시, 군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양어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다.

조국의 땅과 바다에서 펼쳐지고있는 이러한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103(2014)년의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12월 어느날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능력에 비해 물고기 생산량이 낮은데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그 원인의 하나가 공장의 일부 일군들이 양어를 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하신 그이께서는 평양메기공장에서 양어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양어에서 기본인 종자, 먹이, 물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알깨우기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먹이첨가제문제를 해결하는것과 함께 메기의 생육기일을 줄이고 사료단위를 떨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더운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메기는 온수성물고기이므로 물량이 기본인것이 아니라 물온도를 보장하는것이 기본이라고, 여름에는 물론 겨울에도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버림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새끼고기못에 이르시여서는 새끼메기의 생육조건에 맞는 물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2중3중으로 세우며 태양열에네르기를 리용한 물가열기도 적극 받아들여 물온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다시금 일군들에게 공장에서 양어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온 나라에 양어열풍이 휘몰아치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높은 메기생산실적으로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신 그이의 말씀은 온 나라에 양어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으며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의 지침으로 되였다.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이미 있는 메기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것과 함께 평양메기공장과 같이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여러 도들에도 일떠세우고 공장들사이의 경쟁을 벌려 메기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할 구상을 펼치시였다.

하여 평안남도와 황해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 현대적인 양어기지들이 일떠서게 되였으며 전국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양어열풍이 일어나게 되였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순천메기공장을 새로 일떠세웠을 때였다.

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순천메기공장을 산뜻하면서도 규모있게 잘 건설하였다고,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당(조선로동당)의 방침을 평안남도가 앞장에서 훌륭히 관철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면적 대 생산량이 높은 순천메기공장이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못들마다에 메기들이 욱실거리는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랭동고들마다에 랭동한 메기들이 그득히 쌓여있는데 볼수록 흐뭇하다고, 메기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탄부들과 도내인민들의 모

범안리양어장

습을 그려보니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때만이 아니였다.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에서 먹이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어분사료공장건설을 지도하시였으며 공장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현지에 나오시여 현대적인 어분사료기지까지 그쯘히 갖추어놓으니 양어장마다에 욱실거리는 물고기떼가 눈앞에 보인다고,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주게 된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그이이시였다.

신창양어장에서

양어발전에 쌓으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는 바다양어와 양식에도 깃들어있다.

지난 시기까지만 해도 수산부문에서는 바다양어와 양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지 못하고있었다.

그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이 부문 일군들에게 수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그 전망과 미래는 바다로 나가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바다양어와 양식이 세계선진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이 부문의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 발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평양자라공장의 일부

어느 한 종어장을 찾으시여서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를 치하해주시고 더 높이 비약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고 어느 한 련어양어사업소에 가시여서는 온종일 걸었으나 힘든줄을 모르겠다고, 바다련어양어를 틀어쥐고 근기있게 내밀면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신 그이이시였다.

정녕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헌신의 자욱을 끊임없이 새겨가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지금 조국땅에는 양어열풍이 보다 세차게 휘몰아치고있으며 그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순천메기공장에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산물고기를 봉사받으며 기뻐하는 인민들

◇일 화◇

그이의 기쁨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10월말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있은 일이다.

공장의 종합지령실, 알깨우기호동, 야외못, 랭동고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메기생산 및 공장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지난 시기 한해 생산량이 900여t밖에 안되던 공장에서 올해에 1 800여t의 메기를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특히 로력절약형양어, 물절약형양어를 할데 대한 당(조선로동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양어못면적과 로력, 물량을 늘이지 않으면서도 물고기생산량을 2배로 장성시켰다고 말씀하시였다.

야외못들에서 욱실거리고있는 메기들을 보시면서는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 희한한 풍경이라고 기뻐하시였으며 랭동고마다에 산같이 쌓여있는 랭동메기를 보시고서는 만시름을 다 잊으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에 지능화, 정보화, 수자화가 실현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음으로써 실내 및 야외못들의 물온도, 폐하, 산소량을 실시간 측정조정하고 메기들의 생육상태에 맞게 물공급과 먹이량을 조절하며 위생방역대책을 세운것은 물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까지 과학적으로 모의할수 있게 하였는데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양어의 현대화이자 양어설비의 현대화이라는 관점밑에 고정 및 이동식자동먹이뿌리기, 메기수확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도입하였을뿐만아니라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버림물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는것과 함께 물재순환체계의 과학화를 실현하였으며 태양열물가열기를 받아들이고 야외못들에 비닐박막을 씌운것을 비롯하여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메기생산을 계절에 관계없이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메기공장과 같은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여러 도들에 일떠세울뿐만아니라 공장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메기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금괴를 쌓아놓은것 같다

지난해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 종합조종실, 야외못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풍을 발휘하여 3 000t의 년간 메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평가하신 그이께서는 년평균 300t정도의 메기를 생산하던 공장을 개건확장하여 지난해에 3 001t을 생산하였는데 공장이 10여년동안 생산하던 량을 한해동안에 생산한셈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은 우리 나라 메기양어의 맏아들공장이라고 하시면서 해마다 3 000t의 메기를 어김없이 생산함으로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실지 덕을 보는 공장으로 명예를 떨쳐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삼천메기공장이 나라의 양어부문을 선도해가는 기관차, 첨단양어기술보급의 선구자, 교육자, 원종장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메기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사료단위를 세계적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성장속도와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료첨가제개발사업을 전국의 메기공장들에서 경쟁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의 관리운영과 양어부문 사업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어 랭동저장고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랭동된 메기들을 보시고 마치 금괴를 쌓아놓은것만 같다고, 정말 보배공장이라고 거듭 평가하시였다.

본사기자 김승기

과학기술에 양어의 전망이 있다

- 수산성 양어지도국 국장 한영일과 본사기자와의 문답 -

기자: 오늘 조국의 양어부문에서는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는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양어의 현실태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국장: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가는 곳마다 샘물과 약수, 온천, 못과 호수, 강을 비롯하여 물원천이 많은 우리 조국에는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지어져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영양가높은 물고기들을 키워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책을 받들어 나라의 곳곳에는 최근에만도 양어장과 함께 수백수천t능력의 현대적인 양어기지들이 일떠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어를 하고있는 단위만 하여도 수천여개나 됩니다.

올해에는 각 도마다 건설되고있는 자라공장들도 조업하게 될것입니다.

해마다 양어기지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물고기생산량도 늘어나는것이 오늘 조국의 또 하나의 이채로운 양어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조국에서는 양어를 어떤 방향에서 발전시키고있습니까?

국장: 물고기를 기르자면 물과 종자,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양어의 3대요소라고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양어발전추세는 전문화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양어장 혹은 공장에서 물고기종자를 가져다가 비육만 시키는 기업이 있고 또 엄지고기에서 종자를 받아내기만 하는 기업, 물고기사료만 생산하는 기업이 따로따로 갈라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양어단위들에서는 물관리, 종자확보, 사료보장은 물론 양어와 관련한 과학기술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하면서 집약화, 물절약형, 로력절약형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기자: 양어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화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장: 한마디로 양어의 3대요소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양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물문제입니다.

양어에 리용할수 있는 물은 샘물, 온천, 강, 바다, 공업용수로 리용하고 버린 물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들에 맞는 어종편성을 잘하여 양어를 집약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린 물이라도 물고기생태에 유리하게 침전, 소독시켜 물을 재순환할수 있는 정화체계를 갖추어놓아야 양어에서의 물절약형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고기먹이문제입니다.

현재 양어부문에서는 실리의 원칙에서 먹이와 양어생산량의 비률을 1 대 1로 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부단히 연구해나가고있습니다.

애국풀, 단백초와 같은 비알곡먹이를 리용하는것과 함께 생육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먹이첨가제연구에서 성과가 이룩되여 실리를 보고있습니다.

이외에도 팽화먹이에 안식향산제를 넣는 방법도 연구도입되고있습니다.

물고기종자의 과학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적게 먹고 빨리 크는 물고기종자를 연구하여야 실리를 거둘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양어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보다 중요한것은 그 담당자인 우리 수산성 양어지도국과 군중양어를 하는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로동자들이 새 기술창조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가도록 하는것입니다.

지금 국가콤퓨터망에 《양어열풍》홈페지가 개설되여 모든 양어장의 종업원들이 자기 기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양어와 관련한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기술자, 기능공들로 준비해가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국에서는 양어연구성과의 도입지를 급속히 확장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현대화, 과학화에는 끝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양어에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그 전망은 락관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 *

목표는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평양메기공장은 양어의 현대화수준이 높은 공장이다.

공장에 구축되여 은을 내는 통합생산체계 하나만 보아도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수 있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있다.

공장의 기술일군인 주가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현시기 끊임없이 비약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며 한숨 돌리다가는 잠간사이에 뒤떨어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때문에 공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양어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이미 구축하였던 통합생산체계의 기본핵을 이루는 분산형조종체계의 기술적약점들을 극복하고 더욱 갱신하였다.

갱신된 조종체계는 현장의 구체적인 실정에 보다 접근하면서도 물절약형, 로력절약형양어의 안전성과 믿음성을 보다 높여주고있다.

공장에서는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는 종자, 물, 먹이 문제 등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기술공정원인 장선일은 메기종자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지난 시기 남에게 의존하던 메기종자들을 공장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기술준비원 김영일과 유혁철을 비롯한 연구성원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 완성한 메기의 생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성과는 메기양어의 집약화를 보다 높여주어 생산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이 연구도입한 먹이첨가제들도 메기의 소화흡수와 증체률을 높여주어 메기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설비를 갱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가 일어나고있다.

이 사업에서는 사료작업반이 앞장에 서고 있다.

사료작업반 반장 구성철은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에서 사료를 생산하는 설비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금 우리 작업반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데 공장의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팽화먹이생산설비를 개조하여 그 성능을 훨씬 개선함으로써 사료의 질을 더욱 높이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이 기술혁신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과학기술학습을 강화한데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시간을 아껴가며 적극 리용하고있는 과학기술보급실의 정보봉사체계 《룡마》에는 양어부문의 수많은 과학기술자료들이 구축되여있었다. 종업원들은 이 체계를 통하여 양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배운 지식을 생산실천에 구현해나가고 있다.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강화하고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하게 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어디서나 일고있는 양어열풍

남포시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

지금 조국의 그 어디를 가보나 양어열풍이 일고있다.

전국도처에 메기공장, 양어장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의 수준도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도 자기 단위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양어장들을 꾸리고 물고기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는 공장구내에 건설한 못에서 롱정어, 메기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길러 종업원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도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한 양어장을 새로 또 건설하였다. 기업소에서는 지대가 낮은 곳들과 물웅뎅이들을 찾아내여 양어못으로 전환하였다. 하여 양어장의 규모는 지난 시기의 몇배로 확장되였으며 물고기생산량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런가 하면 평안북도 구장군,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를 비롯하여 물원천이 좋은 지역들에서는 이미 양어장이 꾸려진데 맞게 그 면적을 확장하고 물고기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있다.

이와 함께 평양의 대동강과 보통강에서 그물우리양어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남포시를 비롯한 지방의 여러 강들과 호수들에도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들이 전개되여 이채로운 풍경을 펼치고있다.

양어를 잘하고있는 한동철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양어를 시작하여 실지 그 덕을 보니 양어야말로 수익성이 높은 생산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하면 할수록 성수가 나고 우리들의 식탁을 윤택하게 하는것이 양어입니다.》

본사기자 김슬기

강원도그물우리양어장

특색있는 물고기료리들로 흥성인다

오늘 평양시의 식당들에서는 메기공장과 양어장들에서 생산한 메기와 미꾸라지, 철갑상어, 룡정어 등으로 만든 료리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료리들을 맛있게 드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나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이는것을 금할수 없다.

아마 그것은 내가 인민봉사부문의 일군이여서 더욱 그러한것 같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양어부문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곳곳에 양어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들과 양어장들이 일떠서 신선한 물고기들이 시내의 급양봉사단위들에 공급되고있다.

메기와 미꾸라지를 비롯한 물고기들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 사람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료리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가고있다.

그에 따라 우리 인민봉사총국산하의 모든 봉사단위들에서는 보기도 좋고 입맛을 돋구며 영양가도 높은 료리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같은 원자재를 가지고도 특색있는 료리들을 봉사하여야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 들게 되는것이다. 또 그렇게 될 때 인민들이 실지로 양어의 덕을 볼수 있다.

옥류관료리전문식당의 봉사자들이 이 사업을 잘하고있다. 식당의 료리사들은 민족료리와 세계적인 명료리뿐아니라 메기와 미꾸라지료리도 잘 만들어야 옥류관이 더 흥성이고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기간 료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바쳐왔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여러가지 료리들로 품평회를 자주 열고 종업원들의 의견을 참작하기도 하였고 료리에 대한 손님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였다.

그 나날 료리사들은 과학적인 물고기가공방법을 하나하나 찾아내게 되였으며 료리기술도 터득하게 되였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식당은 봉사단위들중에서 제일먼저 특색있는 메기료리와 미꾸라지료리를 내놓게 되였으며 손님들의 호평을 받게 되였다.

지금 이곳에서 봉사를 받은 손님들은 세상에 유명한 평양랭면도 좋지만 보기만 해도 구미가 동하게 만든 메기며 미꾸라지, 철갑상어료리들도 인상적이였다고 자기들의 소감을 말하고있다.

옥류관료리전문식당에서 특색있는 료리로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면 평양숭어국집은 료리의 가지수가 다양한것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평양숭어국집의 료리사들은 부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메기의 대가리로부터 꼬리, 지느러미까지 모두 료리감으로 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실지 그들의 지혜와 열정이 깃들어있는 수십가지의 료리들은 영양학적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일상 식생활만이 아니라 연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있다.

미꾸라지료리는 창광봉사관리국의 순두부국집이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미꾸라지를 가지고 20여가지나 되는 료리를 만들고있는데 특히 추어탕이 매우 유명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봉사를 받고있다.

이 식당들뿐이 아니다.

청류관과 칠성각, 개선청년공원종합식당 등 평양시안의 급양봉사망들은 물론 지방의 크고작은 식당들에서도 양어장에서 잡은 메기, 미꾸라지, 쏘가리, 칠색송어 등의 물고기들로 여러가지 료리들을 만들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봉사일군의 한사람으로서 인민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을 위해 많은 일을 찾아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 생기군 한다.

나는 앞으로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 나라의 혜택이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인민봉사총국 국장 민창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잊을수 없는 사람들

(전호에서 계속)

최일천은 일본정보계통이 주목하는 《요시찰인》이였다. 그가 맡아보는 《동아일보》지국의 출입문밖에는 매일같이 일본헌병들과 밀정들이 와서 그를 감시하느라고 당번을 섰다. 적들이 최일천을 주목하게 된것은 그가 장춘에 나와서도 청년들과의 사업을 계속하였기때문이며 국내애국인사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기때문이다. 우리가 동만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 그는 반제청년동맹조직을 통하여 직접 육성한 여러명의 핵심청년들을 항일유격대에 보내주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반영된 재만조선인들의 민족해방투쟁실상과 그것을 유감없이 구사한 활달하고도 격정적인 필치는 바로 이상과 같은 혁명실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수련된것이라고 평가해야 할것이다.

최일천은 심양과 베이징에 있을 때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에 나와 국내의 저명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전과를 소개하였다. 조국광복회가 결성된 후에는 그 강령도 해설해주었다. 그의 선동에 따라 리극로선생이 지도한 조선어학회와 민속운동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와 민족의 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일천은 일본관헌들의 박해와 감시가 심해지자 《동아일보》지국의 일을 할 때 만주각지를 돌아다니며 손수 수집해놓았던 우리의 투쟁자료들과 독립운동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나와 당시 조선어학회를 책임지고있던 리극로선생에게 그 자료들을 모조리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속에는 우리가 오가자에서 발간한 《농우》잡지묶음도 있었다.

《이것은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자료들입니다. 적의 감시와 추적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이 자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이 자료들로 력사저술을 하려고 하는데 리선생이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잘 보관해주기 바랍니다.》

그때 최일천은 이런 부탁을 남기고 만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해방직후 리극로선생이 자기의 부탁을 받고 소중히 보관해온 자료들을 넘겨받아가지고 단숨에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써냈다. 그 책은 파지를 모아 제조한 모래알까지 섞인 재생지에 인쇄된것이였으나 구독자들이 너무 많아 력사와 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백지에 전문을 베껴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탐독하는 인기도서로 되였다.

최일천은 해방직후 미군정이 반공반북을 이남땅의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총검으로 떠받들어주는 살벌한 환경속에서 반일투쟁만화도 찍어내여 청소년들에게 반제반일정신을 고취시켰다.

해방후 정치적혼잡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서울장안에서 그가 온갖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와 같이 무게있는 글을 써냈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최일천은 해방후 남조선정계에 진출하여 조선혁명당 정치부장, 신진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일성**장군환영위원회 위원, 민족자주련맹 집행위원 등 중요직책을 력임하면서 려운형, 홍명희, 김규식 등 인물들과 손을 잡고 민주력량의 집결과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

였는데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에서 반동들에게 피살되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최일천의 미완성작이다. 그는 원래 2집을 낸 다음 계속하여 다음권을 쓰려고 하였으나 해방후 복잡한 남조선정치무대에 발을 들이민 후 시간을 내지 못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책의 다음권에서 필자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였다고 한다.

최일천이 살아있었더라면 분명 그 책이 세상에 나왔을것이고 그렇게 되였더라면 우리의 혁명력사와 관련된 흥미있는 사료들도 더 나왔을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 항일혁명투쟁시기를 회상할수 있는 인물들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초기활동을 회상할수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적다. 나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다. 잊어버린 사연들도 많고 어떤 일은 삭막해서 날자와 인물들을 정확히 회고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남만과 중부만주일대에서 우리의 활동을 도와준 인물들가운데서 김리갑의 애인 전경숙은 특별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있다.

김리갑은 《금강관》(《대성관》)사건의 주인공으로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도 소개된 사람이다.

중국사람으로 변장한 일본령사관 경찰들은 1930년 봄 길림시내 복흥가에 있는 오상헌(오춘야)의 집에서 김리갑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결박하여 그를 장춘으로 련행해갔다.

그후 그는 재판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지고 대련감옥에 끌려갔다.

전경숙의 부모들은 딸이 김리갑과 같은 혁명가와 결혼하는것을 반대하였으나 그 녀자는 부모들의 뜻을 단호히 거역하고 탈가하여 애인을 따라 대련에 갔다. 그때 그의 나이가 열여덟인가 열아홉살이였다. 그는 방직공장에 들어가 공청책임을 지고 활동하면서 김리갑의 옥바라지를 성의있게 하였다.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동만특위 서기로 사업하던 동장영이였다. 그는 자기가 대련에서 지하당사업을 할 때 전경숙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에 감동되여 《그 녀자를 만나보고나서 조선녀성의 절개와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하였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전경숙의 고결한 풍모에 탄복하였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에게 저녁을 지어주고 국민부의 테로계획까지 귀띔해주던 그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그려보았다. 그리고 김리갑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주대지를 뛰여다닐 때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고 푼전을 모아 학비와 로자를 쥐여주던 그 많은 은인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 은인들중에는 아직도 생사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제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이 다 풀릴것 같다.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한자리에 앉아 수십년동안 쌓이고쌓여온 회포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지난날 그들이 나에게 바친 그 로고와 지성을 죄다 보상할수 있겠는가.

인민을 더 잘살게 하고 우리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며 인민의 지지성원속에서 개척한 혁명을 완성하는것이 그들에게 바치는 최대의 보상이며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민에게 이런 보상을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끝)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시여

조국을 찾았던 많은 외국인들은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사상 류례없는 제재책동속에서도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모르고 보란듯이 사회주의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주체아프리카》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조선이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력사적전변들을 이룩하고있는것은 조선에 최강의 무기,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기때문이다.

일심단결이란 말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한덩어리로 뭉치는것을 말한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하여온 일심단결의 력사였다.

조국에서 일심단결의 전통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의해 마련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마련된 일심단결은 그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근 반세기에 이르는 령도의 나날 조선로동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당으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혈연적으로 이어진 어머니당으로 발전시켜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들도 일심단결을 출발점으로 하여 제시하시였고 정치도 단결의 정치를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본성이며 기본특징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군들이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십년전 어느날 한 지방에서 성냥이 떨어졌다는 자료가 제기되였다.

그 자료를 받은 일군은 속으로 그런 문제를 대책하지 못하고 제기해온 그곳 일군들을 나무라며 그이께 올리는 문건의 맨 마지막자리에 간단히 한줄 써넣었다.

일군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성냥이나 소금 같은 것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한시도 떨어져서는 안될 필수품인데 어째서 문건의 맨 마지막에 반영했는가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이 큰것이건 작은것이건 관계없이 문건의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우리는 인민의 리익을 무엇보다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부터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모든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인덕정치를 펼치시여 전체 인민이 수령과 마음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혼연일체로 되게 하시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일심단결을 비상히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은 조국인민이 대국상을 당하고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날로 가중되는 제재와 고립, 압살속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할 때 3일이나 3달, 3년후에는 조선의 붕괴를 보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국은 무너진것이 아니라 그이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더 강해지고 더 높이 솟구쳐올랐다.

자재와 자금, 로력과 기술을 비롯하여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닌 인민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였다.

조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강국의 토대가 구축되였다. 그리고 나라의 협동벌들이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정리되고 우리 인민의 높은 리상과 문명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오늘 조국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정치와 경제, 국방과 문화의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인 6월 19일을 맞을 때마다 그이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돌이켜보며 이날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는것이다.

올해 6월 19일은 력사의 그날로부터 55돐이 되는 날이다.

김향숙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가질것을 강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아래에 시정연설의 요약문을 싣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그것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며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그것은 자립, 자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과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문화를 우리식으로 개화발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력사적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3차에 걸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것은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였습니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합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것이 필요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력사적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숭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조미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6.12조미공동성명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신 그이께서는 공화국이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온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의 비현실적이고 온당치 못한 행태와 미국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움직임들이 로골화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에 화답하는 행동도 따라서게 되여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사하고있지만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고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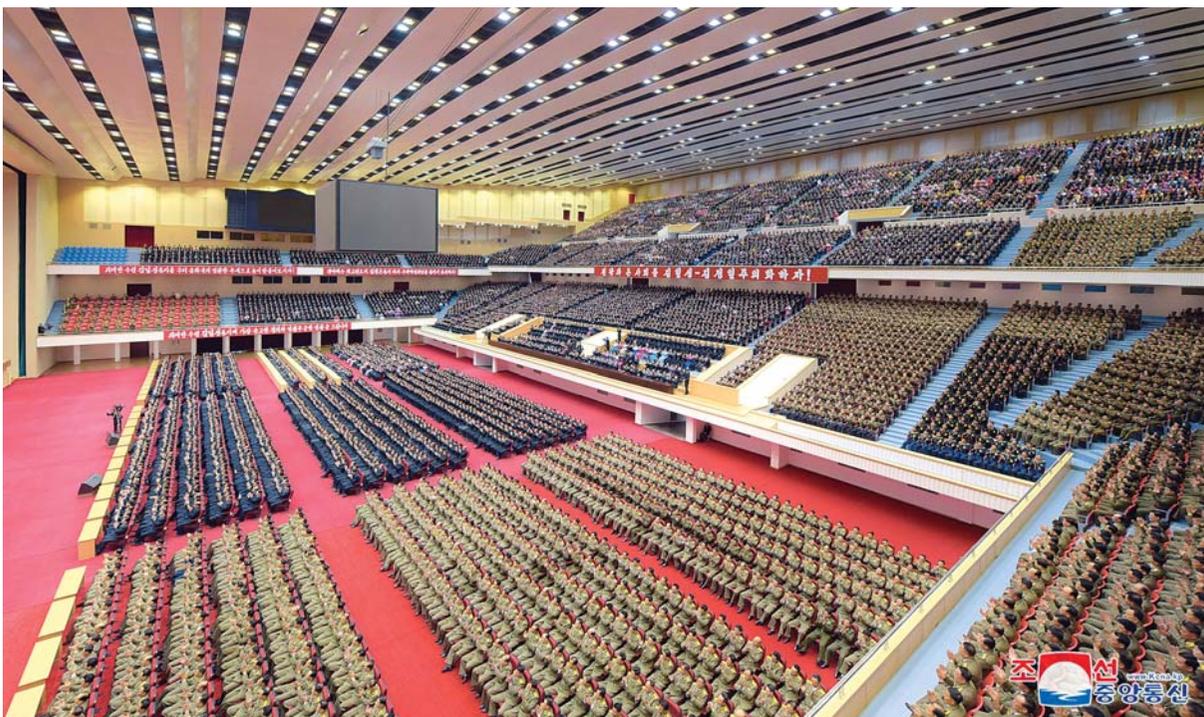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그러자면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것이며 매우 위험할것이라는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끝으로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 * *

흠모와 그리움속에 맞이한 태양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

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흠모심과 그리움은 더해만지고있다.

그것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조국인민들은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을 안고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조국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제21차 **김일성**화축전, 제6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송화미술전람회, 전국서예축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태양절경축행사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중앙보고대회에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공로자

흠모의 정 넘치는 제21차 **김일성**화축전장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1912년 4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인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통운의 날이며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전인류적인 대경사의 날이라고 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재생과 부흥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진로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애국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여러 행사들에서 조국인민들은 태양절을 맞고보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고,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혁명업적은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열기띠게 진행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태양절경축행사는 조국에서뿐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회와 강연회 등 다양하게 진행되였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절세의 위인을 그리는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 각종 행사들을 품위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위대한 주석님을 흠모하고 그리는 마음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된 행사장들에서도 뜨겁게 굽이쳤다.

재중동포들은 경사스러운 태양절 아침 길림육문중학교에

성황리에 진행된 제6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제30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장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축행사에는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과 총련합회일군들, 산하지구협회 및

태양절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과 사진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지역인사들과 동포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지부대표들, 각계층 재중동포들과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총령사관성원들, 동북3성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인사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보고대회 보고에서 최수봉제1부의장은 위대한 주석님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

료녕지구협회 결의편지채택모임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태양절경축
공연의 일부

태양절경축공연을 관람하였다.

기 항일혁명의 붉은기높이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주시였으며 자주의 억센 신념으로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러면서 그이께서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해오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시종일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었다고 격찬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뿐만아니라 재중동포들은 태양절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및 사진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경축공연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행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사업을
짜고드는 총련합회일군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현지로
떠나면서
도 사업
을 토의하
였다.

사진도서전시회준비를 하였다.

비약의 원동력, 자력갱생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떨치는 조국의 발전력사는 자력갱생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자력갱생이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였기때문이다.

자력갱생의 진리성과 위력은 조국이 걸어온 전 로정에서 뚜렷이 증명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전통은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였다.

그때 조선의 혁명가들은 남에게 의존한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이라는 투철한 립장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맨주먹으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는 한편 병기창을 꾸리고 작탄을 만들어내였으며 그것으로 침략자들을 족치였다. 그 위력은 대단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 작탄에 얼마나 많이 녹아나고 넋을 잃었던지 《연길폭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군 하였다.

이렇게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전통은 그후 조국이 새 사회건설과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하였으며 전후 재더미만 남은 페허우에서 전설속의 천리마가 날아오르게 하고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어느 한 나라 사람의 황당한 목소리를 《붉은기》호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로 눌러버린 힘도 바로 자력갱생이였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게 한 자력갱생의 위력은 오늘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제재봉쇄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보다 높이 발휘되고있다.

그것은 조국인민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 1호를 만든것을 놓고도 알수 있다.

당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는 지하전동차를 설계해본 경험도 없고 제작자들 대부분이 기업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세대들이였다. 더우기 적대세력들의 봉쇄책동으로 하여 애로와 난관은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이곳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기 힘으로 할수 있고 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자각과 의지를 안고 지하전동차개발에 한사람같이 달라붙었다.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던 그때처럼 설계도면 한장을 놓고도 천백가지 사색을 기울이였고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치며 끝내는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불가항력적인 자력갱생의 위력은 지난해에도 힘있게 과시되였다.

날바다를 가로지르며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고암—답촌철길과 주체화가 실현된 금속공장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만들어낸 각종 륜전기계들, 날마다 새로운 건설신화가 창조되는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단천발전소건설장 등은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비약하는 조국의 무진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축도이다.

이렇게 기존의 정치개념이나 경제학적인 수자로서는 가늠할수 없는 조국의 저력과 무한한 발전잠재력은 다름아닌 자력갱생에 근본원천을 두고있으며 자력갱생이야말로 비약의 원동력이며 번영의 보검임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하기에 자력갱생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전진하는 조국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는 지금 온 행성에 울려퍼지고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모든것을 창조하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나가는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였기에 조선은 자력갱생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기적만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

이것은 비약의 원동력,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조국은 반드시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게 될것이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이기도 하다.

량경호

우리 조국의 국풍

매 가정들에 대를 두고 이어가는 가풍이 있듯이 나라들에도 세대를 이어 전해가는 국풍이 있다.

국풍은 한마디로 말하여 나라의 풍속으로서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되여 내려오는 생활규범이나 방식을 말한다. 국풍에는 그 나라의 력사와 전통, 민족적인것이 담겨져있을뿐아니라 매 인간들의 인생관, 생활관 등이 반영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국풍은 해당 나라 사람들의 성장과 사회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조국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고유하고도 우수한 국풍이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나가는것은 조국의 제일가는 국풍이다. 조국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왔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강재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호소를 받들어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철의 용해공들은 19만t능력의 용광로에서 27만t의 쇠물을 녹여냈고 황철의 로동계급은 3년이 걸린다던 용광로건설을 한해도 못되는 기간에 끝냈다. 청년들은 몇해가 걸려야하는 해주-하성철길부설공사를 단 75일동안에 해제꼈다.

이러한 기적창조의 원천은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이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쓰러지면서도 일터를 뜨지 않고 기대를 돌리던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이 간직되여있었다.

오늘 일심단결의 위력은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인민은 일편단심 그이만을 믿고 따르고있다.

그이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펼쳐지는 가슴뜨거운 화폭들은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간에 맺어진 혼연일체의 숭엄한 화폭이다.

조국에서는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의 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기풍도 자랑스러운 국풍으로 되고있다.

자력갱생, 이것은 조국의 전진방식, 창조본때이며 인민들의 사업기질이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들과 궤도전차들, 지하전동차를 비롯하여 이 땅에 창조된 모든것이 그처럼 소중한것은 바로 남의 식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창조하며 마련한것이고 인민의 피와 땀이 스며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이 걸어온 장구한 기간 남을 쳐다보고 남의 힘을 기대했다면 오늘의 높은 존엄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자력갱생의 궤도우에서 조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올랐고 강국건설의 억년기틀이 마련되였다.

자력갱생에 조국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전사회적인 풍조로, 국풍으로 되고있기에 조국인민앞에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가는것 역시 조국의 훌륭한 국풍으로 되고있다.

20대 꽃나이처녀가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 자식없는 늙은이들의 친자식이 되여 돌봐주며 생사기로에 놓인 중환자를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미풍을 비롯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펼쳐지는 가지가지 이야기들은 오직 남이 없는 내 나라, 모두가 한식솔, 친형제가 되여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기풍, 이러한 국풍은 조국의 더없는 자랑이다.

이밖에도 조국에는 주체조선 고유의 훌륭한 국풍들이 많다.

세기를 이어 면면히 계승되여온 우수한 국풍을 적극 살리고 강국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국풍을 수립해나갈 때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는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영

생산장성의 예비를 찾아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나라의 비료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굴지의 화학공업기지이다.

이 공장은 1960년대에 농촌경리가 급속히 발전하는데 따라 화학비료공업의 장래발전과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력대신 무진장한 석탄으로 더 많은 화학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방법을 연구도입하기 시작한 력사를 가지고있다.

최근년간 기업소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방대한 규모의 능력확장공사를 진행하여놓은데 그치지 않고 집단적기술혁신운동으로 생산장성의 예비를 찾는 사업을 기업전략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

이 기업소에는 지배인으로부터 관리일군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가지이상의 기술혁신안을 내놓도록 하고 그것을 매주, 매월 기술협의회를 통하여 가능성과 우월성을 확증한 다음 심의를 거쳐 기술도입으로 이어지게 하는 체계가 확고히 세워져있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린 결과 가스발생로직장에서는 로의 가동대수가 더욱 늘어난데 맞게 생산효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시간당 수천㎥의 가스를 더 생산하고있다.

1질소직장에서는 생산공정을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음으로써 질소생산량을 1.8배로 끌어올리였다.

지난 시기에는 압축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높은 온도를 랭각탑안에서 물로 일정하게 낮추어 산소분리기로 들어가게 되여있었다.

직장장 김기성, 책임기사 박무진을 비롯한 일군들은 오랜 기능공들과 합심하여 전력과 로력이 많이 소비되던 이 공정에 새로운 형식의 랭각기를 설치함으로써 공기온도를 낮추면서도 생산성을 훨씬 높일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지난 시기보다 생산량은 늘어나고 전력과 로력은 더 절약되게 되였다.

이러한 생산적앙양은 다른 직장들에서도 일어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기업소 혹은 직장별로 과학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계속 늘여나가고있으며 설비관리와 운전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요구성도 높이고있다.

과학기술주도의 기업전략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생산능력과 비료생산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고있다.

김철하지배인은 《자강력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각지 협동농장들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려는 우리 공장로동계급의 열의속에 비료생산성과도 높아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세계물리학계의 초점을 모은 학자

론문지도를 하고있는 임성진(왼쪽)

주체97(2008)년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임성진선생은 도이췰란드 막쓰-보른연구소에서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학자들과의 공동연구에 참가하게 되였다.

당시 막쓰-보른연구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온 많은 학자들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중 대부분이 유럽나라들에서 온 학자들이였고 아시아지역에서 온 학자들은 몇명 되지 않았다.

이미 수십건의 연구론문을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한 경력을 가지고있는 명망있는 학자들이였지만 연구소에 와서는 1년정도 지나서야 연구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있었으며 그것은 관례처럼 되여있었다. 그만큼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과제는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기 힘든 연구과제들이였다.

연구소에서 임성진선생의 첫 연구과제는 펨토초자외선레이자발진문제를 리론적으로 해명하는것이였다. 깊은 자외선대역에서의 레이자발진은 나노기술, 정보기술, 생물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인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연구의 초점이 모아지고있는 첨단분야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당시 진척이 없어 연구소에서도 애를 먹고있던 연구과제였던것이다.

아시아 그것도 조선의 젊은 학자가 이 연구과제를 성공하면 좋고 성공하지 못하여도 무방하니 한번 실력을 검토해보자는것이 연구소의 심산이였다.

임성진선생은 연구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좀처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하루 3시간정도 잠을 자면서 그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여러 착상과 리론들을 내놓았으나 그것을 증명하는 계산이 도저히 풀리지 않게 되자 그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머리속에 떠오른것은 자기에게 물리학의 원리들을 처음으로 배워주던 평양제1중학교의 선생님들과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는데서 스승을 앞서야 한다고 일깨워주던 **김일성**종합대학 교원들의 모습이였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연구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해주었다. 그는 다른 나라 학자들의 방법론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는 3달만에 비선형광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중요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그의 연구성과는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있던 유럽의 학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었다.

도이췰란드의 한 권위있는 학자는 《나는 수십여년간 도이췰란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박사들과 공동연구사업을 해보았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훌륭한 결과를 얻어내는 재능있고 훌륭한 학자는 처음 봅니다.

조선의 젊은 박사의 수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조선의 과학교육수준이 정말 높습니다.》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때로부터 11년이라는 기간 임성진선생은 세계물리학계를 놀래우는 많은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피지컬 레뷰B》와 《옵틱쓰 엑쓰프레쓰》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비선형광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많은 론문들을 발표하였으며 《레이자와 전자광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CLEO)를 비롯한 국제토론회들에서 연구성과들을 발표하여 세계학계를 놀래웠다.

외국잡지에 실린 임성진의 론문

SCIENTIFIC REPORTS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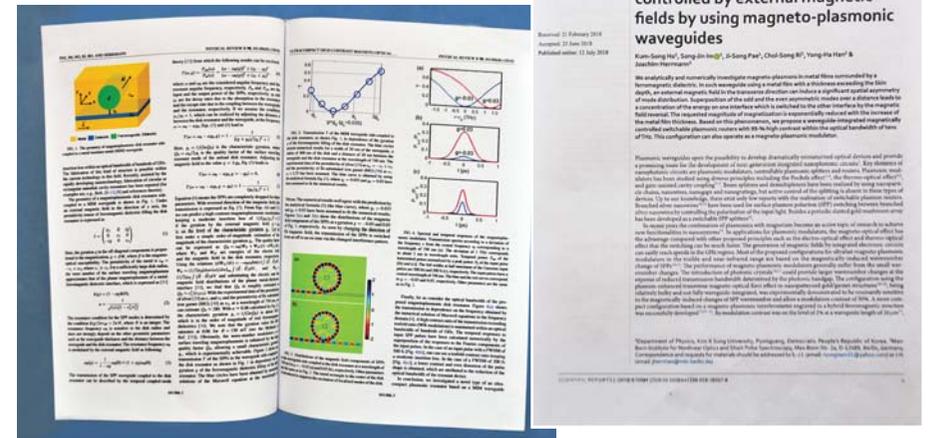
Switchable plasmonic routers controlled by external magnetic fields by using magneto-plasmonic waveguides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네데를란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과학자들은 국제출판물들에 임성진선생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론문을 인용하였다.

임성진선생의 론문을 본 다른 나라의 학자들은 조선이 광학분야에서 이룩한 첨단성과를 보았다고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

올해 42살인 임성진선생은 나라의 가장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인 2.16과학기술상수상자이다.

교수, 박사인 그는 현재 세계광학협회, 국제전기전자협회, 도이췰란드의 스프링거-네이쳐출판사의 학술심사원으로 활동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력사인물

언어학자 리개

리개(?-1456년)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름난 언어학자이다.

1436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집현전 부수찬, 직제학에 이르렀다.

당시 집현전 문인들가운데서 문학활동이 가장 뛰여나 명망이 높았던 그는 훈민정음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5세기에 활동한 재능있는 학자이며 작가인 성현은 리개의 정력적인 창작활동과 그가 쓴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산문은 청수하고 영특한 맛이 있으며 시도 또한 정묘하기 짝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와 글에도 뛰여나 당대에 이름을 떨친 리개는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불우한 운명으로 하여 많은 작품들이 잃어지고 현재 《동문선》과 《대동시선》에 얼마간의 시와 산문들이 실려 전해지고있다.

그가운데서 시 《죽음에 다달아 쓰노라》, 《선죽교》, 《박연폭포를 그린 그림에》 등은 리개의 사상적지향과 창작경향을 엿볼수 있게 하는 대표적작품이다. 특히 시 《죽음에 다달아 쓰노라》는 시인의 불의에 굽히지 않는 생활신조와 굳은 절개를 감동깊이 노래한 작품으로서 널리 알려졌다.

리개는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의 창제와 그것을 만든 원리와 방법, 그것을 맞추어쓰는 규칙등에 대한 리론적해설과 해당한 실례를 든 원전인 《훈민정음해례》의 저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종이 궁중에 차려놓은 언문청의 성원으로 망라되여 적극 활동한 리개는 한자음운에 대한 지식이 깊어 세종의 지시에 따라 다른 학자들과 함께 《동국정운》(1447년)의 편찬에 참가하였으며 《운회》의 번역에도 참가하였다.

리개는 력사에 박팽년, 성삼문 등과 함께 사륙신의 한사람으로 기록되였다.

* * *

꿈과 희망을 안고있는 소년단원들

꿈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마도 소년단시절인가싶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평안남도 평성초등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더욱 확신할수 있었다.

학원에는 수학, 콤퓨터, 무용, 축구소조실 등이 있다. 오전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오후에는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여러 소조실들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체육, 예술활동 등에 참가하고있다.

학생들속에서 희망자가 제일 많은 소조실은 콤퓨터소조실이다. 소조실에서는 수학적재능과 콤퓨터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프로그람작성기초와 여러가지 지능프로그람작성을 배우고있다. 콤퓨터화면을 마주하고 각이한 도형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전문가들을 방불케 하였다.

그들속에는 콤퓨터는 물론 수학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있는 4학년 2반의 리순정학생도 있었다. 지도교원 류성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착상이 뛰여나고 수학적론리가 정연하여 교원들로부터 수재형의 학생으로 지목되고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콤퓨터과목의 과정안을 남보다 먼저 습득한 5학년 2반의 장일, 신은심학생들은 벌써 한단계 높은 프로그람작성지식을 배우고있다.

수학소조에서는 5학년 1반의 학생들인 김주성, 김성국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남달리 뛰여난 수학적재능으로 평상시 교원들을 놀래운 그들은 전국학원부문 학과경연에서도 뛰여난 풀이방법으로 심사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아직 나어린 소년단원들이였지만 그들은 벌써 앞날의 과학자로 되기 위해 지식의 높은 탑을 쌓아나가고있다.

물리, 화학소조실들에서도 학생들은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펴고 배움에 열중하고있다. 물리소조의 소조원들은 실험과 실습의 방법으로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갔고 화학소조실에서는 교원의 강의에 학생들이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집중하고있다.

그와는 대조되게 무용소조실에서는 학생들이 노래선률에 맞추어 각이한 춤동작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다. 지도교원인 황은심은 학생들이 무용을 배운지는 그리 오래지 않지만 몰라보게 그 수준이 올라갔다고, 지난해 제56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으며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에도 참가하였다고 하였다.

이곳 무용소조에서 뛰여난 재능을 보여주는 학생은 5학년 2반의 김만수학생과 2학년 1반의 안필녀학생이다.

그들은 육아원, 애육원시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건강을 되찾았을 때에는 병원에 찾아오신 그이를 만나뵙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던 복받은 학생들이였다.

학생들은 공부는 물론 노래와 춤도 잘하는데 그들이 출연하는 무용이야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와 실화무대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한점 그늘없이 재간둥이로 자라는 자기들의 모습을 담은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이 감동에 잠기게 하였다.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있는 학생들속에는 축구소조원들도 있다. 전국의 학원부문의 축구선수권을 당당히 보유하고있는 그들은 앞으로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림으로써 조국의 위용을 떨쳐갈 꿈과 희망을 가슴속에 안고있다.

이러한 꿈과 희망은 그들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의 가슴속에도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증산땅에 넘치는 향취

우리는 얼마전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조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평안남도 증산군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서해의 푸른 물결과 무연한 논밭들을 바라보며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 중년남성이 증산에 처음 오는것 같은데 이 고장의 특산인 메밀국수를 꼭 먹어보라고 하는것이였다. 증산의 메밀국수가 그렇게 유명한가라는 우리의 물음에 그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메밀이라 하면 첫째로 증산메밀을, 둘째로 황해북도의 메밀을 일러왔습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증산메밀로 만든 국수 또한 유명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온천에서 사는 자기는 출장으로 증산에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증산의 메밀국수를 꼭 맛보고간다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에서 여운을 받은 우리는 먼저 메밀국수를 잘 하기로 소문난 국수집으로 향하였다.

마침 우리는 이곳에서 방순철 증산군사회급양관리소 지배인을 만날수 있었다. 증산메밀국수가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말하였다.

《우리 고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군 합니다. 증산메밀국수가 유명한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은 메밀가공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공방법을 발전시켜나가는데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메밀국수의 맛과 향기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증산국수집 료리사들

그러면서 그는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게 낫다고 국수맛부터 보라고 하는것이였다.

실지 이곳에서 만든 메밀국수는 독특한 메밀향기와 질기면서도 매끈매끈한 국수발, 이에 어울리게 꾸미로 놓은 소고기와 닭고기 등과 여러가지 남새들로 조화를 이루어 그 맛은 참으로 진미였다.

이곳 식당에서 국수를 봉사받는 사람들의 심정도 우리와 다를바 없었다.

증산군읍 53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오영호로인은 우리에게 자기는 누구보다 메밀국수를 좋아한다고, 그래 자주 이곳에 찾아와 두그릇은 들군 하는데 여기 국수는 국수발에 식초를 친 다음 육수물에 말아먹어야 제맛이 더 난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식당에서 메밀국수의 맛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메밀분쇄기를 새롭게 제작하여 질좋은 메밀가루를 생산하고있으며 국수만드는 공정의 공업화를 다그쳐 증산땅의 특산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자기 지방의 특산물을 발전시켜나가려는 이 고장 인민들의 지향은 군의 공공건물들과 살림집, 문화후생시설들마다에도 비껴있었다. 학생소년회관만 보아도 현대적이면서도 자기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살림집들과 유치원, 탁아소들도 아담하면서도 문화적이였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탁아소어린이들이 추는 장고춤 《우리 장단 좋아요》를 비롯한 민속무용들과 바둑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속오락들을 즐겨하는 어린이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에서도 이 고장에 넘치는 민족적향취를 한껏 느낄수 있었다.

증산군탁아소 어린이들의 기차놀이

우리와 만난 증산군탁아소 소장 강순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고장에서는 장고춤과 바둑놀이가 널리 장려되고있습니다.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 탁아소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적인 색채가 짙은 민속무용과 민속놀이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자기 고장의 특색과 전통을 더욱 살리고 이어나가려는 증산사람들의 보람차고 희열에 찬 모습과 이 땅에 넘쳐나는 향취를 한껏 느끼면서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국수집은 손님들로 흥성인다.

다기능탐사기 개발자

얼마전 함경남도 탐사관리국을 찾았던 우리는 이곳의 일군으로부터 감동깊은 사실을 알게 되였다.

휴대용다기능탐사기를 개발하여 지하자원탐사의 과학적발전에 이바지한 한 기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주인공이 메아리음향사기술과의 류해성이였다.

언제인가 그는 출장지에서 광부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게 되였다.

정확도가 높은 탐사설비의 부족으로 광물생산의 실수률을 높이지 못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나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이 버럭으로 되고있다는것이였다.

무심히 하는 광부들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류해성기사에게 충격을 주었다.

류해성

다기능탐사기의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비록 버려지는것이 적은것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하나도 허실할수 없다. 현대적이고 능률적이면서도 광물의 품질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을 할수 있는 탐사기를 만들수는 없을가.)

이런 생각과 함께 광부들의 심중의 호소가 그의 머리에서 떠날줄 몰랐다.

그는 탐사기개발을 놓고 자기가 결코 외면할수 없다는것을 인식하게 되였으며 그것을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로 스스로 정하였다.

탐사설비개발은 그에게 있어서 생소한 길이였다. 전문분야가 아닌것으로 하여 자원탐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낮에는 직장에서 음향설비에 대한 연구로 시간을 보냈고 퇴근해서는 탐사기에 대한 문헌탐독으로 밤을 밝혔다. 과학기술전당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산 등 그가 걸은 길도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이미전에 낯을 익힌 광산의 한 기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였다. 편지의 내용인즉 탐사분야에서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의 기술자들이 저들의 탐사기로 측정만 하고 광물의 매장량과 품위등을 알려주지 않았을뿐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알려면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했다는것이였다. 이 소식은 그의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에 불을 달아주었고 연구에서 분발과 추동을 가져왔다.

사색과 탐구의 련속속에 그는 끝내 새로운 탐사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개발자라면 응당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은을 낼수 있도록 그 도입도 끝까지 책임적이여야 한다고 본것이였다. 그의 발걸음은 또다시 온 나라 곳곳으로 향해졌다. 각지의 광산들을 찾고찾으며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탐측설비의 절박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켰다.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탐사기의 특성과 그에 맞는 사용방법, 세계적인 자원탐사설비의 발전추세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이와 함께 새로 만든 탐사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그는 보다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우리식의 탐사기구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고있으며 그 품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요구는 첨단수준에 이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3년간의 현장실험도입과 다양한 지질수학적해석수법을 적용하여 마침내 그는 자원개발단위들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다기능화되고 능률이 높은 휴대용탐사기를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다.

그가 개발한 휴대용다기능탐사기는 시추탐사에 앞서 광상의 추리와 매장량지수, 광체주향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뿐아니라 지열-지하수자원, 석탄자원 등을 탐사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자원개발부문과 채취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광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일본에서 살면서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구사업에서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두 사회제도에서의 전혀 다른 생활체험이 마음속에 소중하면서도 강렬하게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는 음향건재를 우리나라의 자재에 의거하여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 식

백의동포

백의동포라는 말은 흰옷을 즐겨입는 민족이란 뜻으로서 근대로부터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 우리 민족을 자칭하여 부르던 말이다.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입은것은 깨끗하고 순결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정서와도 관련된다.

또한 그것은 흰색을 밝은것과 광명을 의미하는 색으로 여겼기때문이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누구나 일년 사계절 연하면서도 맑으며 가벼우면서도 밝은 색갈의 옷 특히 무명이 옷감으로 널리 리용되면서부터 무명의 부드럽고 순결한 색갈이 한결 더 고상한 맛을 주었으므로 흰무명옷을 입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굳어졌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흰옷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옷으로까지 되고 근대에 우리 민족을 백의동포, 백의민족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 * *

상 식

생물공진료법

생물공진료법이란 생명체가 정상상태 또는 병적상태에서 내보내는 고유한 생물전자기마당의 주파수를 측정한데 기초하여 병적상태때와 같은 주파수를 복사함으로써 생명체안에서 공진을 일으켜 병조부위를 파괴 또는 없애버려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생물공진료법으로 사람들에 대한 치료뿐아니라 여러가지 비루스와 미생물들에 대한 소독, 살균, 억균작용등도 실험적으로 증명되여 수많은 품을 들이던 소독을 간단하고 짧은 시간동안에 진행함으로써 질병예방과 병원관리, 기초의학, 미생물연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또한 생물공진료법기재를 리용하여 염증과 신경통, 기생충병들은 물론 난치성질병치료에서도 성과를 보고있다.

생물공진료법은 21세기 첨단의학의 하나로서 의학분야에 광범히 적용되고있다.

* *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가목사지구협회 박순자큰어머니 앞

큰어머니의 당부를 안고삽니다

보고싶은 큰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사촌오빠들과 언니도 다 잘 있으리라고 보면서 저와 우리 가정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얼마전에 잡지 《금수강산》의 기자선생님들이 저의 집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기자선생님들은 제가 해외동포와 연고관계가 있다는것을 알고 우리 집에 들렸는데 저는 그들에게 지난해 9월 조국을 방문한 큰어머니와 상봉하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는 저에게 기자선생님들은 큰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못하지만 중국 가목사시의 넓은 지역을 오고가며 동포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다는것이였습니다.

기자선생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느라니 몸은 비록 이국땅에서 살고있지만 민족의 넋을 잃지 않고 동포들의 단합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써 일하는 큰어머니가 돋보이였고 가정의 자랑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마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은 큰어머니와 만났을 때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큰어머니에 비해 저희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있다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큰어머니가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우리들에게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하시던 당부를 다시금 되새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을 더 잘해나가야 하겠다는 생각도 굳히였습니다.

지금 우리 고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마을과 고향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떨쳐나 도로를 번듯하게 닦았고 마을앞에 꽃밭이며 어린이들의 놀이터도 새롭게 꾸려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는데 우리 가정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큰어머니, 애국의 마음은 자기 마을, 자기 일터에서부터 생겨난다고 봅니다.

군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일하는 세대주도 온실의 통풍조건과 난방체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공사에서 한몫을 말아하였을뿐만아니라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태양의 꽃들을 보다 튼튼하게 키워낼수 있는 효능높은 미생물비료를 만들어냄으로써 작업반의 보배로 불리우고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들을 때면 남편의 뒤바라지를 더 잘하며 아이도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저희들은 조국에 올 때마다 늘 당부하던 큰어머니의 말을 언제나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에서, 큰어머니는 해외에서 애국사업을 더 잘해나가자는것을 약속하고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평안남도 증산군 락생리 2-1인민반
김금희 올림

인상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

조국에 오면 나는 빵을 비롯한 여러가지 당과류들을 한아름 사군 한다.

물론 내가 살고있는 곳에도 식료품들이 많다.

그러나 조국의 식료품들은 자연의 맛과 향기를 그대로 느끼게 하여 정말 맛있다.

《금컵》상표를 단 사탕과 《선흥》상표를 단 빵은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내가 가져가는 조국의 식료품들을 맛보고는 중국의 이웃들이 정말 맛이 좋다고, 조선에 다시 가면 자기들것도 사다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다.

그럴 때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조국이 식료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말해준다.

나는 조국의 이런 전변이 어떻게 왔는지 잘 안다.

조국인민들은 모든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저앉지 않고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따르며 억척같이 일떠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 삶의 요람을 아름답고 살기 좋게 꾸려가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우며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손색없는 제품들을 생산해내고있다.

조국인민들의 이 정신력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

나는 조국인민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아 통일애국을 위한 일을 많이 하겠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현춘옥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나이 일흔하고도 절반을 넘기였다.

지금과 같은 나이에 어디 려행하고싶은 생각은 없지만 조국에만은 꼭 한번 가보고싶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조국이 자기의 생일 70돐을 맞는 때에 그렇게도 품어온 소원을 이룰수 있게 된것으로 하여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은 심정을 지닌 중국 심양시에서 살고있는 세 친구와 함께 조국으로 오게 되였다.

렬차에 몸을 실은 때부터 나는 내내 흥분되여있었다. 압록강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줄곧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이역에서 언제나 조국을 그리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나로서는 조국의 산야를 무심히 대할수 없었던것이다.

평양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였다. 거리들과 건축물들은 특색있었고 평양메기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의 설비들과 제품들은 매우 선진적이였다.

특히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등을 비롯한 성대한 경축행사들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체류기일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보고 들은것만으로도 나는 조국의 거대한 힘을 느끼였다.

그 힘이 나는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단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조국이 일심단결된 힘으로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내 비록 인생의 황혼기에 있지만 조국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가다듬게 된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조귀순

34년전의 향나무앞에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속에 산다고 한다.

내 나이도 이젠 일흔을 가까이하고보니 흘러간 옛일들이 자주 떠오르군 한다.

그가운데서도 조국에 대한 추억은 어느것이나 참으로 소중하다.

얼마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나는 뜻밖에도 수십년전에 보았던 한그루의 향나무를 보게 되였다.

그때의 애솔푸르던 향나무가 몰라보게 컸어도 나는 순간에 알아볼수 있었다.

나는 그 나무가 서있는 곳으로 달려가 유심히 살펴보고 나무의 잎새를 쓸어도 보았다. 반가움과 함께 마치 나무가 나를 기다리고있은듯이 생각되였다.

그래서인지 고향집뜨락에 들어선것만 같아 감개가 무량해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34년전 해방산호텔에 숙소를 잡고 평양참관을 하던 잊지 못할 나날들이 나의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였다.

조국을 처음으로 찾았던 그때 내 나이는 35살이였다.

부모님으로부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 나는 친척방문으로 평양에 들어섰던것이다.

해방산호텔에 려장을 푼 그날부터 나는 평양의 모습에 반하지 않을수 없었다.

웅장한 평양대극장, 주체사상탑, 개선문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수도의 거리들,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넘쳐나는 인민의 밝은 웃음…

그 모든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나의 뇌리에는 여기가 바로 나의 조국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그날에 받았던 그 감동은 34년이 흐른 오늘날 더욱 커졌다.

이렇게 조국에 찾아오니 지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이 너무도 많이 변하였다.

대동강기슭에는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새 거리들이 일떠섰고 강한복판에 서있는 릉라도와 쑥섬에는 인민의 문화휴식터 그리고 과학기술전당이 현대미를 자랑하며 멋들어지게 서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려명거리와 중앙동물원,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다.

모든것이 선진적인데다가 다 평범한 인민들이 쓰고 살며 리용하고있었다.

최근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평양에만도 손에 다 꼽지 못할 정도로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고 그곳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였다.

이민위천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조국의 모습을 이제 다시 수십년 세월이 흐른다 해도 나는 진정 잊을것 같지 못하다.

한그루의 향나무앞에서 되살려본 34년전의 추억으로 하여 나는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하다면 그 행복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계절의 바뀜처럼 저절로 찾아드는것이겠는가.

아니,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펼쳐지고있는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 우리 해외동포들의 가슴속에도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안겨주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34년전의 향나무앞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끝없이 안겨주는 어머니조국에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재중동포 윤금자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보다 (3)

공연에는 참매들이 훨훨 나는 장면도 있었는데 얼마나 생동한지 나는 동물원이나 교예단의 조교사들이 길들인 참매로 재주를 펼쳐보이는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것도 실은 무인기에 의한 형상이였다.

꼬리치며 떠다니는 물고기까지 실감있게 형상하고 맨 마지막부분에 또다시《조선아 만만세》라는 글발을 빛나게 아로새긴 무인기들의 출현은 대규모의 공연에 걸맞게 공간적깊이와 립체감을 보장하고있었다.

《해솟는 백두산》,《위대한 수호자》, 《과학의 나래펴고》,《건설의 대번영기》를 비롯한 여러 장과 경들에 희한한 명화폭을 펼친 3차원화상처리기술, 레이자투영기술, 각이한 조명기술들이 훌륭하다는 말로밖에는 더 표현할 길이 없다.

드넓은 경기장바닥에서 백두산의 웅건장중한 자태가 우뚝 솟아오르는 광경이며 집채같은 파도가 금시 덮칠듯이 높뛰는《위대한 수호자》의 장면형상은 감탄을 자아냈다.

여기에 변화무쌍한 조명효과, 비단우에 꽃수를 덧놓듯 다양화, 예술화된 서체로 친근하게 안내하는 자막형상까지 갖춘 작품은 단결력의 극치일뿐아니라 회화와 음악, 조형과 조명, 률동과 첨단과학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완벽한 형상을 이룬 황홀경의 극치였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과 그 소감을 나누었다.

한 뉴질랜드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구성된 훌륭한 공연이다. 조선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여도 이 공연 하나만 보면 많은것을 알게 될것이다. 공연의 형식과 내용도 풍부하지만 장치설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리용하여 환상세계를 펼치였는데 최고의 공연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한 외국인도 《박력있고 현대감이 나는 선률과 출연자들의 예술적형상, 선진과학기술이 도입된 무대장치들로 화려한 예술의 세계를 펼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나의 온넋을 완전히 틀어잡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뿌듯함을 느낄수 있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야말로 21세기가 받아안은 또 하나의 예술기적이며 조선민족의 긍지를 만방에 떨쳐준 예술사변인것이다.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공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매 장, 매경이 다 인상적이였지만 그중에서도 제3장 제5경 《우리 장단 멋이로세》의 흥취는 아직도 나의 가슴속에 큰 여운을 남기고 있다.

1 200여명의 가야금수들과 민족타악기수들, 무용수들이 펼치는 이채로운 출연으로 아름다운 민족적정서를 그득히 안겨주는 형상은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새로운 음악형상이다.

지난 시기의 조국방문을 통하여 나는 공화국에서 민족악기인 가야금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음색과 형상의 특성을 살려 가야금병창, 가야금독주와 병창, 가야금병창과 합창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시켜온데 대하여 들은바 있다.

그런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가야금대병창형식은 또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있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어깨춤이 절로 나는 가야금대병창은 조선민족음악예술의 발전모습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민요 《모란봉》을 기본선률로 하고 여기에 우리 겨레의 사랑을 받고있는 민요 《아리랑》의 선률을 삽입하여 민족적흥취와 멋을 살리고있으며 가야금수, 민족타악기수, 무용수들이 조선옷을 입고 가야금과 장고의 연주, 무용을 특색있게 결합하여 펼치는 모습은 얼마나 장관인가.

나와 우리 동포들은 가야금의 감미로운 선률과 어울려 흥을 돋구는 매혹적인 장고춤이 무대에 펼쳐졌을 때 저도 모르게 일어나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다.

재중동포 리희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에 올라

고국방문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

《우리는 조국에 올 때마다 곁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윈심을 쓰며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절세위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들먹이군 합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성원들이 한 말이다.

하기에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만수대언덕으로 먼저 오른 동포들이다. 그들은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린 다음 여러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였다.

제23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았던 김권동포는 날이 갈수록 불멸의 꽃을 키우는 단체와 단위들이 많아지고있는데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였다.

제26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 국제휘거축전을 관람하며

리선동포는 조국에 올 때면 축전장을 찾군 하는데 아름답게 핀 불멸의 꽃들에는 절세위인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온갖 지성이 다 비껴있다고 감동에 젖어 말하였다.

동포들은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도 보았다.

리순남부의장은 녀성독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남성독창 《그이의 리상》, 무용 《내 사랑하는 꽃》 등의 종목들은 비록 해외에서 살아도 조국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려는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폐부로 절감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재중동포들도 항상 조국과 마음을 잇고 통일애국사업을 더 잘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월향전시관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였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개선문앞에서

월향전시관에서

평양대극장에서 공연관람을 마치고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2)

동방의 천년강국이였던 고구려는 존재기간 수많은 외래침략자들의 침공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고구려인민의 반침략투쟁사의 갈피에는 침략자들을 용맹과 지략으로 물리친 전쟁, 전투들이 기록되여있다.

그중에는 A.D. 12년부터 A.D. 14년까지 진행된 전쟁도 있다.

고구려의 서쪽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들은 싸움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고구려의 장수 연비를 유인하여다가 목을 베고는 왕을 죽인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였다.

그러자 적군의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부터는 고구려왕을 《하구려후》(고구려왕을 하대한 말)로 부르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격분한 고구려의 군사들은 반공격에로 넘어가 적군의 여러 군들을 점령하였다.

침략자들은 고구려군의 드센 공격앞에서 더 어쩌지 못하고 쫓겨갔다.

이 전쟁은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으며 고구려는 고조선의 옛 땅가운데서 적지 않은 부분을 되찾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침략자들을 지략으로 물리친 위나암성방어전투도 고구려인민들의 반침략투쟁사에 새겨져있다.

A.D. 28년 7월 침략군이 불의에 고구려땅 깊이로 쳐들어왔다.

침략군이 고구려의 수도를 향하여 곧바로 침공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의 대무신왕은 그에 대처할 방안을 토의하였다.

우보 송옥구는 지금 침략자들의 나라에 흉년이 들고 사방에서 《도적(농민폭동군을 얕잡아 이르던 말)》이 봉기하고있는데 아무러한 명목없이 침입한것을 보면 이것은 임금과 신하들이 결정한 정책이 아니라 필시 변방장수들이 자기 사리를 채울 목적으로 제마음대로 우리 나라를 침범한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험준한 지세에 의거하여 불의에 습격하면 적들을 반드시 격파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좌보 을두지가 적은 무력은 아무리 강해도 많은 무력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쳐들어온 군사가 우리보다 더 많은 조건에서 우리는 꾀를 써서 쳐야지 힘으로는 이길수 없다, 지금 침략자들이 멀리 쳐들어와서 싸우고있으나 그 예봉을 당할수 없다, 그러므로 성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지키다가 적들이 피로해진 다음 나가 치는것이 옳다고 하였다.

결국 국왕은 을두지의 제의를 받아들여 수도방위성에 들어가 방어전을 벌리기로 하였다.

적군이 수십일간이나 성을 포위공격하였으나 성은 끄떡없이 고수되였다.

그러나 성안에 있는 고구려군의 형편도 어렵게 되였다.

이때 을두지는 아마도 적군은 우리가 암석지대의 산성에 들어와있으므로 물이 부족할것이라고 타산하면서 포위를 풀지 않고있는것 같은데 못속의 잉어를 잡아 물풀로 싸고 얼마간의 술을 보내여 적장을 위로하는체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을두지의 의견대로 왕이 술과 잉어를 편지와 함께 적장에게 보냈다.

편지에서 왕은 장군이 《백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경내에서 로숙하는것을 생각하여 보잘것 없는 물건이나마 보낸다고 하였다.

이 편지를 본 적장은 성안에 물이 많으니 속히 함락시킬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저들의 식량도 다 떨어졌는지라 고구려측에서 권고하는대로 물러가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되여 퇴각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A.D. 28년의 이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다.

여기서 침공무력이 《백만》이라고 한것은 고구려측에서 적들을 우롱하느라고 과장해서 한 말이고 실지로는 몇만명밖에 안되였지만 적들이 불의에 쳐들어왔기때문에 고구려로서는 불리한 정황에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전략전술적우세로 불리한 정황을 타개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침략군을 타승하였다는데서 고구려군대와 인민의 뛰여난 슬기와 용맹을 엿볼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용맹과 지략으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수호한 당시의 전쟁, 전투들은 고구려인민의 반침략투쟁사에 뚜렷한 한페지를 남겼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박혁철

평안남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3)

- 방선문 -

방선문은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읍에 있는 성천객사였던 동명관의 바깥문이다.

일명 송객정 또는 망경루라고도 불리웠다.

《성천읍지》에 의하면 방선문은 1670년에 세웠는데 그후 1727년에 고쳐지었다.

방선문은 정면 3간, 측면 2간에 4익공겹처마합각지붕의 경쾌한 건물이다.

10개의 바깥기둥과 2개의 안기둥은 모두 흘림기둥이고 2층에는 널마루를 깔았다.

이 문루가 다른 문루들과 구별되는 점은 두공에서 가장 높은 단수인 4익공두공을 쓰면서 두공 첫단에 모두 룡대가리조각을 새겨붙인것과 천정을 소란반자로 아담하게 꾸민것이다.

방선문에 있는 12개의 변형련꽃무늬와 귀면무늬, 화반, 동자기둥의 조각은 우수한 조각품이다.

방선문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객사건축술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며 현재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상 식

대동강이라는 이름의 유래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대동강을 《패강》, 《패수》 혹은 《왕성강》이라고 불러왔다.

《패강》, 《패수》는 수도의 강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패》자는 평양의 옛 이름 《바라나》, 《부루나》에서 《바라》, 《부루》자를 리두식표기로 쓰면서 한자로 옮긴것이다. 그리고 《강》이나 《수》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왕성강》이란 이름도 임금이 있는 성 즉 나라의 수도에 있는 강이란 뜻이다.

이렇게 불리우던 강이름이 11세기를 전후로 하여 대동강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옛 지리책들인 《동국여지승람》, 《대동강수경》 등에서 《많은 강들이 모여 흐르기때문에 대동강이라고 이름지었다.》라고 쓰고있다.

그러나 대동강에서 《대동》이라는 리두식표기를 옛날의 우리 말로 따져보면 《한드루》라는 뜻이다.

여기서 《한》은 크다는 뜻이고 《드루》는 《부루》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서 도시나 수도를 의미하며 또 넓은 벌을 가리켜 쓰던 말이다.

결국 대동강이란 이름은 오랜 력사를 가진 수도 평양의 강이란 뜻이다.

* * *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6)

- 삼 지 연 -

삼지연은 량강도 삼지연군 삼지연읍에서 북쪽으로 약 5㎞ 떨어진 곳에 있는 호수이다.

세개의 못이 가지런히 있다는데서 이름이 유래된 삼지연은 못부근에서 북쪽으로 흐르던 강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년전에 백두화산과 그 주변화산이 분출할 때 땅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용암에 의해 막혀서 이루어졌다.

삼지연일대에 처음 못이 생겼을 때에는 크고작은 못이 매우 많았다.

그후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호수밑바닥을 이룬 현무암층에 틈새들이 생겼는데 거기로 물이 빠지기 시작하여 일부 못들은 말라버리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에는 큰 못들가운데서 7~8개의 못들만이 남게 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개의 못들이 말라버려 세개의 못들만이 남아있게 되였다.

삼지연은 지금 편의상 제일 남서쪽끝에 있는 못을 1호못이라고 부르며 이 못과 너비 약 10m되는 좁은 뚝을 사이에 두고 그 북동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못을 2호못 그리고 2호못의 북동쪽 약 370m되는 곳에 있는 못을 3호못이라고 부른다.

삼지연의 못들은 북동－남서방향으로 줄지어 놓여있다. 1호못과 3호못은 거의 둥글게, 2호못은 북남방향으로 좁고 길게 생겼으며 1호못가운데에는 푸른 숲이 우거진 작은 섬이 있다.

못일대의 기반암은 현무암으로 되여있으며 지표면으로부터 땅속 3~5m깊이까지는 부석층으로 되여있다.

삼지연의 기본물원천은 대기강수와 지하수이다.

호수에는 삼지연붕어를 비롯하여 여러종의 물고기가 있다.

물이 맑고 호안이 백사장으로 되여있으며 고원으로 되여있는 변두리에는 자작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는 울창한 원시림이 바다처럼 아득히 펼쳐져있어 삼지연의 경치는 참말로 장관을 이루고있다.

특히 호수두리에 병풍처럼 둘러선 이깔나무, 자작나무가 물우에 비껴 자연경치를 더욱 돋구어주며 호수주변에는 들쭉나무, 만병초, 물싸리, 진달래꽃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고있어 참으로 수려하고 풍치아름다운 명승지로 되고있다.

삼지연기슭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항일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삼지연혁명사적관과 사적비, 조각군상, 봉화탑을 비롯한 대기념비가 있다.

본사기자

여름 한철 시원한 오이소박이

동포여러분,

우리 민족이 대대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김치는 세계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지목되고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속에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김치를 금과같이 귀한 음식이라는 뜻에서 《금채》라고 불러왔다는것을 아시는분이 있는지.

그만큼 김치는 조선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식물입니다.

옛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고려(918년-1392년)시기에 무우로 김장을 담그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에 와서는 여러가지 남새로 맛좋은 김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치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그 리용량이 많고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민족음식입니다.

김치는 어느때에 만들어먹는가에 따라, 남새재료를 어떤것으로 쓰는가에 따라 종류가 갈라지게 되는데 알려진것만도 300여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호에서는 김치의 한 종류인 오이소박이만드는 방법을 한 재중동포녀성의 음식솜씨를 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산하 지부장들과 함께 해방산호텔에서 동석식사를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룡정시지부장 리명숙동포가 크지 않은 유리단지에 넣은 오이소박이를 꺼내놓는것이였습니다.

좌중에서는 《야!-》 하는 감탄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살속에 빨간 소가 들어간 오이소박이는 그 눈맛과 향기로 하여 사람들에게 군침이 슬슬 돌게 하였던것입니다.

특색있는 오이소박이를 앞에 놓고 동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구만요. 역시 명숙언니의 김치 만드는 솜씨는 숨기지 못하겠군요.》

《오래간만에 언니가 담근 김치를 맛보게 되는구만요.》

《전번에는 시래기된장국을 만드는 강의를 했는데 이번엔 오이소박이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동포들에게 오이소박이를 하나씩 권한 리명숙동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이소박이는 문자그대로 오이에 소를 박은 음식이라는 뜻인데 익혀서 먹기때문에 오이소박이김치라고도 불러요.

먼저 오이를 어리고 씨가 적은것으로 골라 굵은 소금으로 문지른 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5~6㎝길이로 토막낸 다음 한쪽부분을 네갈래로 쪼개여 약간의 가루소금을 뿌려놓아요.

다음에는 가늘게 채친 무우에 잘게 다진 파, 마늘, 생강, 적당한 량의 고추가루와 소금, 사탕가루, 맛내기를 두고 버무려서 김치소를 만들어요.

고추가루는 맵지 않으면서도 색갈이 빨갛게 고운것으로 써야 음식의 눈맛을 더욱 살릴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하게 절여진 오이에 소를 꼼꼼히 박아넣고 소넣은 쪽이 우로 향하게 차곡차곡 단지에 담아 하루밤을 재워요.

약 12시간정도 지나면 오이소박이에서 국물이 나오는데 혹 식구들의 요구에 따라 끓여 식힌 소금물을 적당히 부어 익힐수도 있어요.》

그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동포들은 박수까지 쳤습니다.

박수소리가 채 멎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군침이 슬슬 도는 오이소박이를 앞에 놓고 그 맛까지 보아가면서 구수한 이야기를 들으니 책으로 보는것보다 귀에 쏙쏙 들어와 정말 좋군요.》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도 풍성한 식탁을 감돌던 그 오이소박이향기가 풍겨오는것만 같습니다.

그럼 동포여러분, 시원하고 쩡하며 맵고 새큼달달한 오이소박이를 가정에서도 널리 만들어 잡숫기를 바랍니다.

본사기자 연옥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6)

평양의 특산－감홍로

감홍로는 우리 나라 옛 3대 명주의 하나인 동시에 평양의 이름난 술(소주)로 일러오고있다. 그에 대하여 옛 력사책들인 《평양속지》(토산 음식류)에는 평양에 좋은 술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감홍로라고 씌여져있는가 하면 《경도잡지》(권1 풍속)에는 평양의 감홍로가 좋은 술로 기록되여있으며 《해동죽지》(중편 음식명물 감홍로)에는 감홍로는 평양의 진귀한 산물로서 색이 붉고 향기가 세며 맛이 좋아 세상의 으뜸으로 불리운다고 소개되여있다.

감홍로라는 술이름은 술맛이 달고 술빛갈이 붉은색을 띠는 술이라는 뜻에서 불리워졌다.

지난 시기 평양의 감홍로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인 1825년에 편찬된 《림원십륙지》(정조지 온배지류 소로류)라는 책에는 관서감홍로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여있다.

소주를 세번쯤 고아서 만드는데 술항아리바닥에 꿀을 바르고 지치(산지에 절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의 하나)를 넣는다. 맛은 매우 달고 독하며 색은 연지와 같아 홍로주중에서 제일이다.

이밖에 1924년에 출판된 《조선무쌍신식료리제법》(소주고는 법)에는 좋은 소주에다 붉은 누룩을 가루내여두고 육계(육계나무껍질), 룡안육(룡안열매살), 진피(말린 귤껍질), 방풍(방풍의 뿌리), 정향(말린 정향나무의 꽃봉오리)을 넣은 주머니를 담그어 우려내여 만드는 방법도 소개되여있다.

감홍로가 예로부터 이름있는 약용주의 하나로 손꼽히게 된데는 바로 약효가 높은 이러한 고려약재들을 넣어 담근데 그 비결이 있다고도 볼수 있다. 이렇게 담근 감홍로를 평양지방사람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거나 명절날, 혼례나 생일 같은 뜻깊은 의례때 사용하군 하였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감홍로는 오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로 등록되여 계승되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승길

유모아

며느리의 음식솜씨

어느 한 로인이 며느리를 맞았는데 어찌나 음식솜씨가 없는지 도저히 밥을 먹을수가 없었다.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며칠전 차로인네 집에 가지 않았겠니. 그런데 끼때가 되여 그 집 며느리가 밥상을 들여왔더구나. 몇가지 반찬을 모두 무우로 만들었는데 그 맛이 그저그만이더구나.》 하며 이런저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이, 그런거라면 저도 만들수 있어요.》 하고 큰소리를 쳤다.

이윽고 저녁때가 되여 밥상이 들어오는지라 로인은 자못 기대가 컸다.

그래 살펴보니 반찬그릇은 수십개인데 담은것은 모두 시여져 먹지도 못할 무우김치뿐이였다.

기가 막힌 로인이 물끄러미 며느리를 쳐다보고있는데 며느리가 한마디 하였다.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아버님.》

* * *

군 례

계축년(1253년) 섣달 충주성의 인민들은 엄중한 위험에 처하였다. 성을 포위한 외적과 70여일간이나 싸운 그들에게는 군량이 한섬도 남지 않았던것이다.

어느날 별감인 김윤후는 캄캄한 성안의 밤길을 홀로 걸었다. 방금전 군량이 떨어졌다는 량곡창아전의 밀보를 받은 그는 괴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관노 두명이 자기 뒤를 따르고있음을 의식하였다.

(싸움이 힘들었겠는데 무슨 일로 쉬지 않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관노들의 인기척이 난 곳으로 몸을 돌렸다.

그가 돌계단을 다 내려 땅에 발을 대던 찰나 갑자기 무엇이 발치에 콱 걸리는것이였다.

살펴보니 관노 두명이 땅에 박힌 돌처럼 엎디여있었다.

윤후는 그들의 신분적굴종이 리해가 되면서도 이 어려운 때 군사답게 한다리를 척 접고 의젓한 군례를 못하고 시신처럼 있는 행동이 저으기 못마땅하였지만 그들의 용건이 궁금하여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별감어른의 신변이 걱정스러워서이오이다.》

성의 운명이 오늘래일하는 판에 도리여 자기를 걱정해주는 그들이였다.

어둡던 세상이 확 밝아지는것 같기도 하였다. 허나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믿음이 가지 않는 그들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중 체통이 큰 관노가 한무릎을 세우고 군례를 취하며 씩씩한 말로 여쭈는것이였다.

《관노 천보가 소청을 드리옵나이다. 어른님을 여기에 홀로 두고는 한걸음도 갈수 없는 저희들이옵나이다.》

천보는 청을 마치자 군례를 거두고 다시 부복했다.

진정 의리가 깊고 사내다운 이들, 나라가 위태해진 지금 관노의 몸으로 스스로 군사가 되기를 청하여 싸우는 이들이였다.

《별감어른님, 밤이슬이 내리는 모양이오이다. 어서 군영으로 가시오이다.》

그를 부축한 천보의 손등에 윤후의 눈물이 떨어졌던것이다. 윤후는 껄껄 소리내여 웃었다. 싸움이 터져서 언제 한번 지금처럼 웃어본적이 없었던 그였다.

《아니다. 그것은 자기 땅에 너희같은 훌륭한 군사들이 있는걸 알고 기뻐서 우는 충주의 눈물일게다. 어서 가자.》

윤후는 그들에게 관노별초로 어서 가자고 길을 재촉했다. 그의 걸음은 아까처럼 비칠거리지도 지척거리지도 않았다.

그들일행이 관노들이 피운 불무지가 나무들사이로 보이는 소로길에 들어섰을 때 어느새 알았는지 누군가가 《별감어른님이 오신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모두가 윤후에게로 달려내려왔다. 이제나저제나 자기가 오기를 기다렸다는것이 피부로 느껴지자 눈굽이 화끈해졌다.

아이들처럼 기뻐하는 그들과 함께 윤후는 우등불곁에 앉았다. 관노들은 윤후의 앞에서 엄숙한 군례와 함께 충정을 맹세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윤후의 입에서 격정에 젖은 말이 흘러나왔다.

《군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나는 그대들앞에 나설 면목이 없는 사람이요. 성에는 군량이 떨어졌소. 나는 고민했소. 그런데 그런 나를 어제도 오늘도 군적이나 호적에 올라있지 않는 관노들이 일으켜주었소.》

관노들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지금껏 당신들은 굶주림도 누구보다 먼저 당했지만 목숨바쳐 싸울 결의를 군례에 담았소. 오늘부터 당신들은 관노가 아니라 나라의 떳떳한 군사들이요.》

이렇게 말한 후 윤후는 노비문서보따리를 만사람이 보게 두손으로 공중에 쳐들었다가 불속에 확 던졌다.

관노들이 대성통곡을 터치며 윤후앞에 달려와 어푸러졌다. 윤후는 두팔을 힘껏 벌려 그들을 품에 안았다.

(우리는 너무나 늦게 하나가 되였구나. 이제 더는 너희들을 내 품에서 떼여내지 못한다. 이것이 나의 군례이다.)

그날 밤부터 관노군사들은 성문을 열고 노도처럼 달려나가 성밖의 외적들을 쳐물리치며 련전련승을 거두었다.

* * *

네모난 보석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게으름뱅이로 소문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일하기 싫어서 늘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나깨나 마음속으로는 남들이 보란듯이 기와집에서 잘 먹고 잘 입으며 잘살 궁리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박서방은 꿈결에 하늘나라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번쩍거리는 네모난 보석을 높이 쳐들어보이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잘살기를 원하는 너를 도와주려고 이 보석을 가지고왔노라. 이 모서리에서는 낟알이 나오고 이 모서리에서는 옷감이 나오고 또 이 모서리에서는 금이 나오고 나머지 모서리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나온다. 누구든지 이 모서리를 보고 미운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그는 곧 앉은자리에서 죽게 될것이다. 그래, 이 보석을 주면 너는 어떻게 쓰겠느냐?》

할아버지가 묻자 박서방은 깊숙이 허리를 굽히고나서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 보석을 저에게 주신다면 가난한 이웃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남에게 해로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제가 잘산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한 태도를 절대로 가지지 않고 항상 저보다 먼저 남을 위해 살겠나이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앞으로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부디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 보석을 주었습니다. 후닥닥 꿈에서 깨여보니 글쎄 정말 그 네모난 보석이 눈부신 빛을 뿌리며 자기의 머리맡에 놓여있는것이였습니다.

그때부터 박서방은 하루종일 집안에 들어박혀 보석의 이 모서리 저 모서리를 가리키면서 쌀 나와라, 옷 나와라, 돈 나와라 하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 큰 재산을 가진 벼락부자가 되였습니다. 부자가 된 박서방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은 꼬물만큼도 하지 않고 자나깨나 저 혼자 잘 먹고 잘 입을 궁리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에도 박서방네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박서방은 온 동네에 대고 목이 터지게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달려와 불을 꺼주지 않았습니다.

불탄 집앞에 모여서있는 몇몇 동네사람들이 괘씸하게 생각된 박서방은 네모난 보석을 추켜들고 자랑했습니다.

《이 보석은 무엇이든지 부르는대로 나오는 신기한 보석이다. 너희들 자세히 보아라.》

박서방은 으쓱해져서 보석의 이 모서리 저 모서리를 빙빙 돌려가며 옷도 나오게 하고 돈도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석의 한 모서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사람이 나서며 《이 모서리에서는 무엇이 나오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너희들같이 미운 놈들을 죽이라고 하면 곧 죽게 하는 모서리다. 나한테 밉게 보이면 다 죽는다, 죽어!》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벼락부자가 되였다고 늘 으시대던 박서방을 몹시 미워하던 한사람이 썩 나서서 손을 들어 보석의 마지막모서리와 박서방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자가 영 미우니 죽여주시오.》

그러자 박서방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다가 쭉 뻗고말았습니다.

* * *

조선속담 (게으름)

– 청산이 늙겠다

너무도 굼벵이처럼 꾸물거려 청산조차 늙겠다는 뜻으로 하는 일이 더디고 굼뜬 사람이나 한가하게 거들거리며 돌아가는 건달군의 행동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누워서 떡을 먹으면 팥고물(콩고물)이 눈에 들어간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전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소홀히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감은 눈 못 본다

눈을 감고있으면 무엇이나 볼수 없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애당초 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

자주통일의 환희로 설레이던 6.15시대

오늘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여 삼천리강토가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던 통일시대의 나날들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이상이나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가슴아픈 나날만 흐르던 이 땅에서 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이 사변을 안아오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 온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실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시종 줄기차게 벌려나가시였다.

주체89(2000)년초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북남수뇌상봉으로 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하여 분렬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는 북남수뇌상봉이 열리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에 오는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일행을 평양비행장까지 나가시여 따뜻이 맞아주시였으며 수십리 연도에 환영의 꽃물결을 펼쳐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김대중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하여 숙소에도 찾아가시였으며 그들일행을 환영하는 연회에서는 그의 건강을 념려하여 팔걸이의자도 준비하도록 하시고 부인과 한식탁에 앉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등 북남수뇌상봉 전기간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포옹력으로 대통령일행과 남녘겨레들을 크게 감동시키시였다. 그리고 민족자주사상과 뛰여난 예지, 통이 큰 결단으로 평양상봉을 성공적으로 이끄시여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게 하시였다.

이렇게 그이께서는 불과 55시간이라는 짧은 평양상봉의 나날에 분렬 55년동안에도 이루지 못했던 사변적인 성과를 이룩하시여 겨레에게 자주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시고 이 땅우에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하시였다.

6.15통일시대로 불리우는 이 나날들에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진정 놀라운 전변들이 수많이 이룩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남사이에는 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였다. 뿐만아니라 6.15와 8.15를 비롯한 기념일마다 정부와 민간이 주최하는 민족공동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고 계층별회합과 통일행사들이 평양과 서울, 금강산과 제주도 등 삼천리 방방곡곡마다에서 펼쳐졌다. 이와 함께 경제와 문화, 체육 등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되여 경제협력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고 금강산관광이 활기를 띠였는가 하면 통일기를 앞세우고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마다 공동입장하고 북녘의 처녀들이 부산과 대구의 경기장들에서 응원열풍, 통일열풍을 일으켰다.

진정 그것은 6.15이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가슴벅찬 현실이였다.

참으로 절세위인의 숭고한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에 의해 마련된 통일시대의 벅찬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볼수록 6.15야말로 민족의 화해이고 평화이며 통일이라는것을 조선민족 누구나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하였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들을 통하여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밝은 아침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가닿게 될 종착점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있다.

지난해말 일본당국은 《방위계획대강》과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하였다. 사상 최고액수의 군사비를 전제로 하는 이 계획과 관련하여 일본반동들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군사력증강에 대응한 《다방면통합방위력》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력설해댔다.

계획에는 《자위대》에 우주전문부대를 신설하고 호위함 《이즈모》호를 최신예스텔스전투기 《F-35B》를 탑재할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한다는 등의 무력증강항목들이 쭈아박혀있다.

일본집권세력은 이를 재정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하여 앞으로 5년동안에 《방위예산》으로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지출할것을 결정하고 당면하게는 올해 군사비를 사상 최고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올해 군사비에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예정인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도입과 조기경보기 《E-2D》 9대, 스텔스전투기 《F-35A》 6대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여있다.

이것은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를 반대하고 평화를 념원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던 일본이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과거를 되풀이하겠다는것이나 다름바 없다.

《평화헌법》에 의해 일본은 교전권과 전투력을 가질수 없으며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삼게 되여있다.

만 화

《감당해낼수 있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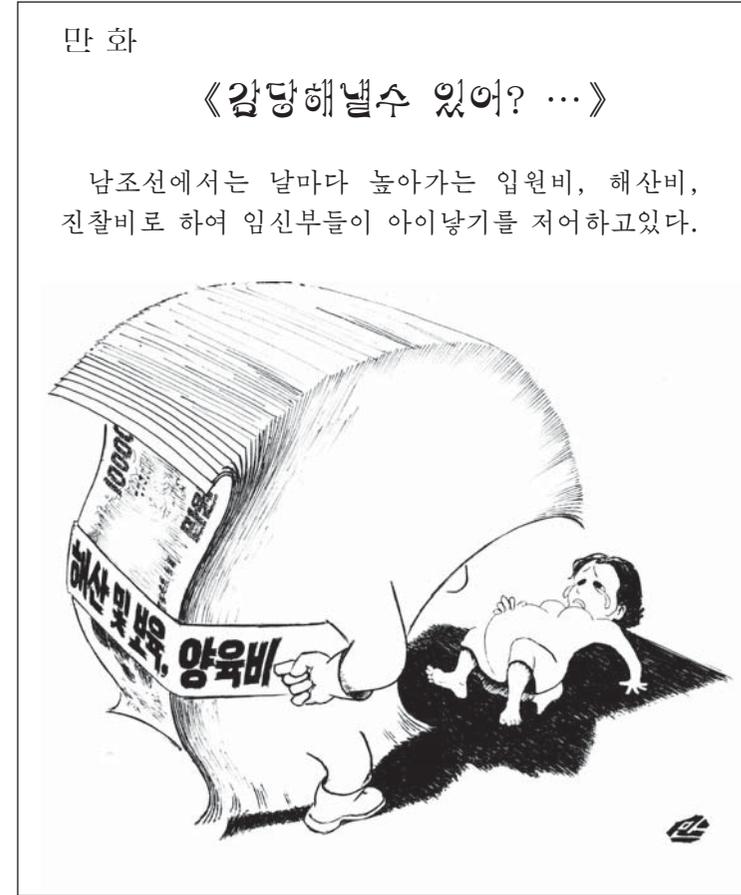
남조선에서는 날마다 높아가는 입원비, 해산비, 진찰비로 하여 임신부들이 아이낳기를 저어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행태를 보면 선제공격무력을 보유하기 위한것으로 집중되고있다.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군사항목들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선제공격과 침략을 위한것이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쇼》만 보아도 주변나라들이 그 공격적인 기술적제원으로 하여 극히 경계하는 무장장비이다. 우주전문부대의 창설도 일본이 다그치고있는 우주군사화책동의 한 고리이다.

뿐만아니라 호위함 《이즈모》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는 계획은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의 정체를 직관적으로 투시해볼수 있게 하고있다.

호위함 《이즈모》호는 명칭부터가 재침망령을 떠올리는 괴물이다. 지난 세기초에 있은 일본의 대중국침략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함선의 이름이 바로 《이즈모》였다.

아베정권이 《이즈모》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는것은 군국주의

자살, 심각한 사회적문제

일본에서 자살행위는 막을수 없는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에만도 일본의 구마모도현에서 17살 난 녀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서에서 그는 《정말 고통스럽다.》, 《더는 살고싶지 않다.》고 자기의 참담한 심중을 터놓았다고 한다.

앞서 아이찌현의 오까자끼시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저주로운 세상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을 매달았고 도찌기현에서는 녀학생 2명이 자기 앞날과 가정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끝에 학교건물 7층에서 투신자살하였다.

일본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전국적인 자살자수가 약 2만 600명에 달하였다.

정객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로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직위와 나이, 남녀에 구별없이 류행병처럼 퍼져가고있는 자살행위는 청년들속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당국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지난해에도 일본은 2018년판 자살대책백서를 발표하면서 젊은 세대의 자살행위가 급증하는것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있는 자살행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치체들의 자살대책계획작성을 지원하며 또 인터네트를 통하여 젊은 사람들과의 상담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과연 사람들의 자살행위를 막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일본은 개별적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는것은 성격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때문이며 따라서 이것만 방지하면 능히 자살을 막을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상담의 방법으로 적절한 의학적, 심리적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하다면 일본국민들의 자살행위가 단순히 성격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겠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일본당국은 《자살대책 100일계획》을 세운다, 학교들에서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어쩐다 하며 그 어떤 결정적인 대책이라도 세울것처럼 떠들고있다.

하지만 취업난, 생활난, 가정파탄, 각종 질병 등 사회적난문제를 안고있는 일본에서 사람들의 자살행위를 없앤다는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일본사회에 대한 불안과 괴로움으로 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편이 낫다는데로부터 사회에 대한 불만과 항거의 표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일본이 쩍하면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안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의 처사와 사람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 만연되고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비극은 결코 없어질수 없다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과거를 부활시키려는 그들의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보인것이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일본에 《이즈모》호와 비슷한 능력을 갖춘 함선이 4척이나 된다는것이다. 그것들이 모두 항공모함으로 변신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일본이 모지름을 쓰며 가는 길은 패망의 전철을 밟는 길이다.

일본집권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며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실현에 광분하면 할수록 가닿게 될 종착점이 결국 일본의 파멸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엄향심

《은하수》화장품의 인기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화장품들이 유라시아경제동맹의 품질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유라시아경제동맹 《코레안 캐어》유한책임회사 인사들은 조선을 방문하여 평양화장품공장을 두차례에 걸쳐 참관하면서 《은하수》화장품들에 주목을 돌리였다.

그들은 유라시아경제동맹의 전문품질분석단위인 종양과학쎈터품질검정유한책임회사 실험쎈터에 《은하수》기능성화장품 25종에 대한 품질검정을 의뢰하였다.

검정결과 개성고려인삼크림(로화방지), 개성고려인삼살결물(수렴성), 개성고려인삼자외선방지물크림 등 모든 제품들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인터네트홈페지를 통하여 조선의 《은하수》화장품을 널리 소개하고 다량구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 《코레안 캐어》유한책임회사 총사장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제품들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녀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품들에 대한 녀성들의 애착심이 날로 커가고있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김승기

내칠보의 운해　　　본사기자 김금진

수많은 봉우리들과 기묘한 바위들로 하여 장엄함과 황홀함을 나타내는 칠보산의 내칠보.

우뚝우뚝 솟은 산악미에 반했는가 산봉우리들에 걸린 운해 쉬이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 모습은 내칠보의 이채로움을 더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1980113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